‘굿바이 맘바’…코비 브라이언트, 딸과 함께 별이 되다

헬기 추락으로 딸 지아나 포함 9명 전원 사망
NBA 우승 5회·올스타 18회 기록한 ‘농구 별’

농구에서 숫자 ‘24’는 공격제한시간을 뜻한다.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42)는 2006년 자신의 등번호를 8번에서 24번으로 바꿨다. 이후 2016년 은퇴할 때까지 24번을 달고 뛰었다.

코비가 24번을 달고 뛰면서 농구에서 24는 공격제한시간보다 ‘코비의 등번호’로 각인됐다. 이렇듯 코비는 2000년대를 아우르는 농구 그 자체이자 전 세계 스포츠의 아이콘이었다.

이 시대의 아이콘이 세상을 떠났다. 미국스포츠전문채널인 ESPN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27일(한국시간) 코비가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코비가 탄 전용 헬리콥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칼라바사스에 추락했고 코비와 그의 딸 지아나를 비롯한 탑승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코비는 1996년 NBA 드래프트 13순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된 직후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됐고 2016년 은퇴할 때까지 레이커스에서만 뛰었다. 20시즌을 뛰면서 1번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2번의 파이널 MVP, 5번의 우승, 18번의 올스타 선정, 4번의 올스타 MVP, 15번의 올NBA팀, 12번의 올NBA디펜시브 팀 수상 등 굵직굵직한 기록을 남겼다. 그가 기록한 통산 3만 3643점은 NBA 역대 4위에 해당한다. 올림픽에도 2번 출전해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같은 업적보다 코비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매일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았다. 미국 농구 대표팀 생활을 함께한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 케빈 듀란트(브루클린 네츠) 등은 매일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은 코비의 모습에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3년 4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직후에도 자유투 2개를 던지고 난 뒤에야 코트 밖으로 물러났다. 2015~2016시즌 정규리그 최종일이자 자신의 은퇴경기에서는 온힘을 짜내 60점을 쏟아 부었다. 블랙맘바(독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은퇴시즌에는 플레이어스 트리뷴에 ‘농구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농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이날 사고도 딸과 농구를 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농구계의 큰 별이 졌다.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아래)가 헬기 추락사고로 그의 딸 지아나와 함께 사망했다는 소식이 27일(한국시간) 전해졌다. 2014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여자 축구 미국-중국전 관전을 위해 지아나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브라이언트의 모습. AP뉴시스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 브라이언트의 소속팀이었던 LA 레이커스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 전광판에 27일(한국시간) 그를 추모하는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팬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위 사진). 스테이플스 센터 근처에 마련된 공간에서 팬들이 촛불과 그의 유니폼을 놓고 추모하는 모습. LA | AP뉴시스

“코비 사망 사실 아니길” 전 세계가 추모의 물결

ML 벨린저·PGA 우즈도 애도 메시지

‘미스터 81’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소식에 농구계를 넘어 전 세계 스포츠계는 커다란 슬픔에 휩싸였다. 종목, 국적을 불문하고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야구)를 대표하는 스타들 역시 앞 다퉈 고인을 기렸다. LA 다저스의 간판스타 코디 벨린저는 비보가 전해진 직후인 27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과 심정을 공개했다. 사망 직전 브라이언트는 다저스 구단 공식 트위터 계정에 벨린저의 지난해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로부터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 벨린저는 “15시간 전이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망연자실해했다.

브라이언트가 20년간 LA 레이커스에서만 뛴 까닭에 같은 LA 연고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과 인사들은 평소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이에 마무리투수 켄리 잰슨, 내야수 저스틴 터너는 물론 매직 존슨 다저스 구단주 등은 추모 글과 더불어 과거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존슨 구단주는 브라이언트처럼 레이커스의 레전드이기도 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 다저스 구단,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 마이크 트라웃, 앨버트 푸홀스(이상 LA 에인절스), 크리스티안 옐리치(밀워키 브루어스),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 배리 본즈, 매니 라미레스(이상 은퇴) 등도 추모 대열에 동참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최종 라운드를 마친 직후 “믿을 수 없을 만큼 슬프다”고 비통해했고, 브라질의 축구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는 프랑스 리그앙(1부리그) 21라운드 릴 원정경기에서 후반 7분 페널티킥으로 자신의 2번째 골을 터트린 뒤 손가락으로 브라이언트를 기리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또 은퇴한 육상스타 우사인 볼트는 과거 경기장에서 브라이언트와 만났을 때의 사진과 함께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개봉 6일만에 300만 관객 쏜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감독

“이병헌은 신이 준 선물”

“모든 걸 갈아 넣었다”는 우민호 감독(49)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비극적 현대사에 얽힌 인물들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이 설 연휴 극장가에서 개봉 6일 만인 27일 누적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대중과 통하고 있다. 극강의 섬세함을 과시하는 연출력과 배우들의 연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과 해석을 온전히 관객에 맡긴 감독의 선택 덕분이다.

우 감독은 군 복무를 마치고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복학한 1996년, 원작인 동명의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읽고 “충격과 궁금증”에 이끌려 영화화를 결심한 지 꼬박 25년 만에 결실을 맺고 있다. “강박증에 시달리듯, 신경쇄약에 걸린 듯 작품을 완성했다”는 그는 “훗날 ‘남산의 부장들’의 연출자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우 감독과 만남은 설 연휴 흥행 성적표를 받아들기 전 이뤄졌다. 마침 개봉일인 22일이었다.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우 감독은 개봉 전부터 호평을 받는 상황을 애써 모르는 척했다. 전작인 ‘마약왕’의 “실패”로 얻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교훈이라고 했다.

● “영화가 역사의 사건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민호 감독은 “‘우리의 근현대사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는 말에 백번이고 동의한다”고 했다. 원작자 김충식 가천대 부총장을 인용한 말이다.

“‘내부자들’이나 ‘마약왕’을 찍을 때만 해도 뜨거운 피가 돌았어요. 이번엔 차갑게 누르면서 ‘반드시 잘 찍고 말리라!’ 그런 심정으로 줄다리기했습니다. 하하! 원작의 톤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냉정한 날카로움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남산의 부장들’은 18년간 절대권력을 누린 대통령이 저격당한 사건을 전후한 40일간의 이야기다. 권력의 2인자로 군림한 전현직 중앙정부보장 김형욱과 김재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 삼은 감독은 김규평(이병헌), 박용각(곽도원), ‘박통’(이성민) 등 인물을 통해 상상력을 확장했다. 시간차의 실제 사건도 같은 시기로 재구성해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영화가 역사적인 사건에만 갇혀있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감독은 “역사의 벽을 넘어 관객이 10·26사건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해석 할 수 있길 바랐다”고 말했다. 그만큼 설계는 치밀해야 했다.

“박용각의 파리 실종 사건과 김규평의 10·26사건을 전혀 별개로 여겼는데 불과 20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두 사건엔 중앙정보부가 깊이 개입돼 있고요. ‘각하’를 위한 ‘충성’이 며칠 만에 ‘총성’으로 바뀐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그 궁금증이 이 영화를 만들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디테일의 힘도 과시한다. 전현직 중앙정보부장을 마치 한 인물처럼 보이도록 한 설정 속에 의미도 숨겨 놨다. 파리에서 최후를 맞는 박용각은 왼쪽 구두가, 사건이 벌어진 ‘안가’ 속 김규평은 오른쪽 구두가 각각 벗겨지도록 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찍었다”는 그는 “망자들을 불러오는 작업이기에 초상화를 그리듯 연출했다”고 말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은 “배우는 물론 스태프 모두 장인정신을 발휘해 완성했다”고 자부했다. 관객도 호응하며 27일 누적 3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제공 | 쇼박스

동명 원작 읽고 영화화 결심…25년만에 결실
판권 구입 때부터 ‘이병헌 없인 접겠다’ 생각
최고 권력자들 초상화 그리듯 디테일한 연출
다음 작품은 순수한 상상력의 장르영화 고민

영화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왼쪽)과 곽도원

● “이병헌? 신이 준 선물!”

우민호 감독은 2010년 ‘파괴된 사나이’로 데뷔해 2012년 ‘간첩’을 내놓았다. “두 편 모두 흥행에 실패”했다. 2015년 ‘내부자들’(900만여 명)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한국영화 최고 기록을 수립하면서 흥행감독이 됐지만, 2018년 ‘마약왕’으로 다시 고배를 마셨다. ‘남산의 부장들’은 다섯 번째 작품이다.

“전작들과 달리 이번엔 모든 걸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10·26사건 자체가 강박적인 이야기인 만큼 찍는 동안 연출도 강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톤과 색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배우들의 애드리브 한 마디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강박적이었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비 오는 날 김규평이 안가로 잠입해 도청하는 장면은 4분 남짓이죠. 안경 밑에 붙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까 말까 하는 긴장감이 중요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컷!’ 외치고 물방울 다시 붙여요. 이전과 다른 모양이면 다시, 또 다시.(웃음) 하루 종일 물방울과 배우의 예민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몰입했어요.”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을 함께 한 배우 이병헌은 우민호 감독의 생각을 현실로 구현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매번 폭발적이다.

“저에게 이병헌이란? 흠~, 하~. 신이 준 선물? 너무 갔나요? 하하하! ‘내부자들’이 안됐으면 제 영화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꿈으로 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하려고 판권을 구입할 때부터 ‘이병헌이 하지 않으면 접는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병헌 말곤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캐스팅에 달려들었죠. 이병헌은 피부의 변화, 미세한 떨림으로 극단으로 소용돌이치는 인물의 내면까지 표현해냈어요.”

배수진을 치고 매달린 작업은 우 감독에게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는 “감독의 위치나 역할, 역량이 뭔지, ‘남산’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고통을 감내할지언정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그림은 점차 선명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최근 세 편의 영화를 통해 현대사에 얽힌 인물, 사회적인 메시지나 정치적인 실화에 주력해온 감독은 “몇 년간 쉼 없이 달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토로하면서 “다음엔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수한 장르영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